

[정답]

문 항	1	2	3	4	5	6	7	8	9	10
정 답	③	⑤	③	②	③	③	①	④	①	②
문 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③	②	②	①	④	①	⑤	②	③	⑤
문 항	21	22	23	24	25	26	27	218	29	30
정 답	④	④	①	④	①	⑤	②	④	⑤	①

[해설]

1. [정 답] ③

[출제의도] 철자문제

[해 설] 왼쪽 그림은 과일, 즉 фрукты, 오른쪽 그림은 전화기, 즉 телефон이다. 따라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철자는 ф이다. 정답은 ③번이다.

2. [정 답] ⑤

[출제의도] 발음: 자음

[해 설] 어말에 오는 자음은 무성음만 가능하다. 따라서 선택지 중 보기의 т[t]와 같은 무성음을 가지는 경우는 어말에 으으로써 무성음화하는 город의 д[t] 밖에 없다. 정답은 ⑤번이다.

A : 너의 동생은 어디 있니?

B : 그는 상점에 있어.

- ① 그는 내 친구야. ② 그는 집에서 일해 ③ 지금 비가 와.
④ 이것은 어려운 문제야. ⑤ 모스크바는 큰 도시이다.

3. [정 답] ③

[출제의도] 발음: 모음 я

[해 설] 모음은 강세를 가질 때만 제 음가를 갖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약화된다. 약화 정도는 강세를 가진 모음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я의 경우 강세를 가지면 [já]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약화되어 [ji], [jə]로 발음 된다. 보기의 ‘언어’ язык에서 밑줄 친 я는 강세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약화되는데, 강세를 갖지 않은 а가 연자음 й, ч, ш 뒤에서는 약화되어 [i]로 발음된다. 따라서 보기의 я는 [ji]로 발음된다. 정답은 ③번이다.

A : 너 학교에서 뭐 공부해?

B : 러시아어 공부해.

- ① 이분은 나의 삼촌이다: я[já]
② 바다로 갑시다!: е[jé]
③ 오늘은 1월 1일이다: я[ji]

④ 목요일에는 하늘이 맑을 것이다: я[já]

⑤ 그저께 우리는 잡지를 읽었다: а[á]

4. [정 답] ②

[출제의도] 어휘: 끝말잇기

[해 설] 끝말잇기에서 주의할 점은 빈칸의 첫 번째 철자는 바로 앞 단어의 마지막 철자와 같다는 점이다. 따라서 т로 시작하는 단어여야 하는데, <보기>의 (a) ‘택시’ таксі, (c) ‘TV’ телеви́зор가 т로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정답은 ②번이다.

책 - 주소 - 스포츠 - 택시/TV

5. [정 답] ③

[출제의도] 어휘: 글자 맞추기

[해 설] 제일 윗 단어부터 하나씩 맞춰보면, 빈 칸의 철자는 П, О, Е, З, Д임을 알 수 있다. 이 철자들을 모두 이어보면, ‘기차’ по́езд가 된다. 정답은 ③번이다.

위로부터 ‘공항’ аэропо́рт, ‘버스’ авто́бус, ‘지하철’ метро́, ‘기차역’ вокза́л, ‘건물’ зда́ние

① кні́га ② ру́чка ③ по́езд ④ пе́сня ⑤ ко́шка

6. [정 답] ③

[출제의도] 어휘: 요일 묻기

[해 설] 요일은 день неде́ли이다.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день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А : 너는 어떤 요일이 좋니?

Б : 나는 토요일이 좋아. 왜냐하면 나는 친구들과 공원에 다니기 때문이야.

① 해(년) ② 세계(평화) ③ 요일 ④ 극장 ⑤ 사전

7. [정 답] ①

[출제의도] 문화: 러시아 작곡가 이해하기

[해 설] П.И. Чайко́вский가 사망한 곳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П.И. Чайко́вский는 1840년에 우랄지방의 보트킨스크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렸을 때 이미 음악에 관심이 있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공부하고, 1866년부터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활동했다. П.И. Чайко́вский는 1893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망했다. 그는 교향곡 7편, 오페라 10편과 발레음악 3편을 작곡했다. 전 세계가 그가 작곡한 오페라 “Евге́ний Оне́гин(예브게니 오네긴)”과 발레 “Щельку́нчик(호두까기인형)”의 아름다운 음악을 알고 있다.

8. [정 답] ④

[출제의도] 문화: 러시아 도시 이해하기

[해 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시작되고 끝나며, АРЕС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러시아 도시는 블라디보스토크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이 도시는 극동지역에 있다. 그 곳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러시아 전체를 통과하는 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시작되고, 끝난다. 올해 9월에는 그 곳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 ① 소치 ② 이르쿠츠크 ③ 노보시비리스크 ④ 블라디보스토크 ⑤ 상트페테르부르크

9. [정 답] ①

[출제의도] 문화: 러시아인의 성명 이해하기

[해 설] 러시아인의 성명에는 부칭이 있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다.

Владимир의 부칭인 Иванович를 보고 아버지의 이름이 Ива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버지의 부칭인 Борисович에서 아버지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 이름이 Борис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참고로 부칭은 아버지의 이름에 남자는 -ович(-евич), 여자는 -овна(-евна)를 붙인다.

제 이름은 Владимир Иванович입니다. 제 성은 Смирнов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아버지의 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함은 Иван Борисович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 즉 제 할아버지의 성함은 Борис Сергеевич입니다.

10. [정 답] ②

[출제의도] 의사소통: 표지판 이해하기

[해 설] 물놀이 금지표시는 ②번이다.

A : 드디어 강가에 왔네. 수영하자!
B : 아니야. 여기서는 물놀이 하면 안돼!

11. [정 답] ③

[출제의도] 의사소통

[해 설] 처음 만나서 서로 소개할 때의 상황이다. Лёна가 Ири́на와 Свёта를 서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Лёна : Ири́на, 서로 인사 나누세요! 제 이웃인 Свёта예요.
Ири́на : 만나서 기쁩니다.
Свёта : 반갑습니다.

12. [정 답] ②

[출제의도] 의사소통: 내용전개 파악하기

[해 설] 대화를 순서대로 배열하면 b-a-c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A : 주 요리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권해주시겠어요?
B : b. 생선을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A : 좋아요. 생선을 주세요.
B : a. 마실 것은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A : c. 녹차로 주세요.

13. [정 답] ②

[출제의도] 의사소통: 시간표현 이해하기

[해 설] 지금 11시이므로 한 시간 뒤는 12시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A : 지금 11시야. 영화는 언제 시작하지?
B : 12시 30분에.
A : 그러면 한 시간 뒤, 영화 시작 30분전에 만나자.
B : 그래. 그때 봐.

14. [정 답] ①

[출제의도] 의사소통: 칭찬 표현

[해 설] 대학 입학했다는 말에 대응할 수 없는 말은 “여보세요”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남학생 : 나 МГУ(모스크바국립대학)에 입학했어!
여학생 : _____

a. 여보세요. b. 아주 잘했어 c. 잘했어 d. 훌륭해

15. [정 답] ④

[출제의도] 의사소통: 조언

[해 설] 아픈 사람에게 병원에(의사에게) 가보라고 충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A : 나 머리가 아프고 열이 높아.
B : 저런, 안됐다! 너 병원에(의사에게) 가봐야 겠다.

16. [정 답] ①

[출제의도] 의사소통: 글의 내용 파악

[해 설] <보기>에서 아들과 딸의 나이가 일치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Анна는 엔지니어이다. 그녀의 남편은 한국어 선생님이다. 이들 부부의 아들은 20살이고 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딸은 15살이고 (고등) 학교에 다니고 있다.

17. [정 답] ⑤

[출제의도] 의사소통: 대화 장소

[해 설] колбаса(러시아식 훈제 순대)와 сыр(치즈)를 파는 장소로 가장 알맞은 곳은 식료품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A : 순대 300그램과 치즈 200그램 주세요.
 B : 그게 전부인가요?
 A : 예, 이게 다예요. 얼마죠?
 B : 200 루블입니다.

18. [정 답] ②

[출제의도] 의사소통: 글의 전개 순서 파악

[해 설] ‘나’의 일과는 ‘개와 산책’(b) → ‘아침식사’(a) → ‘등교’(c) → ‘독서와 음악 감상’(d) 순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개와 함께 30분 동안 산책한다. 아침은 7시에 먹는다. 보통 나는 8시에 등교한다. 학교 수업은 8시간 동안 계속된다. 나는 저녁식사 전에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다.

19. [정 답] ③

[출제의도] 의사소통: 안부 묻기

[해 설] 안부를 묻는 표현으로는 Как дела? Как у тебя(твой) дела? Как жизнь? Как здоровье? Как живёшь? Как проживаешь? 등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A : 안녕, 민수! 어떻게 지내?
 B : 아주 잘 지내.

20. [정 답] ⑤

[출제의도] 의사소통: 제안과 승낙

[해 설] 상대방에게 ‘~ 하자’는 제안: ‘давай(давайте) + 불완료상 동사 미정형’, ‘давай(давайте) + 완료상 동사 미래 1인칭 복수형’, 혹은 ‘완료상 동사 미래 1인칭 복수형’으로 표현 할 수 있고, 이에 동의(승낙)를 할 때는 Хорошо! Прекрасно! Согласен!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Не против. Почему нет. 등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말풍선 위 : 저녁에 같이 테니스 치자!
 말풍선 아래 : 좋아! 6시에 너 데리러 갈 게.

21. [정 답] ④

[출제의도] 의사소통: 길 묻기

[해 설] ‘50분이요?’라고 되물은 것으로 보아 앞의 빈 칸은 목적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A : 에르미타주 박물관 까지 어떻게 가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B : 직진하시면, 왼쪽에 박물관이 보여요. 여기서부터 걸어서 15분 정도 걸려요.
 A : 몇 분이요? 50분이요?
 B : 아니요. 15분이요.
 A : 감사합니다.

- ① 얼마나 자주 ② 지금 몇 시예요 ③ 그녀에게 뭐라고 전할 까요
 ④ 몇 분(동안)이요 ⑤ 오늘 며칠이죠

22. [정 답] ④

[출제의도] 의사소통: 약속하기

[해 설] 극장에 가자고 약속하는 대화문이다. 정답은 ④번이다.

Анна : Ніка, 저녁에 볼쇼이 극장에 가자!
 Ніка : 언제 어디서 만날까?
 Анна : 6시에 극장 매표소 옆에서 보자.
 Ніка : 좋아. 그러자(약속한 거다)!

- ① 안녕 ② 유감이다 ③ 축하해 ④ 그러자(약속했다) ⑤ 맛있게 먹어

23. [정 답] ①

[출제의도] 의사소통: 대화 내용 파악

[해 설] 대화의 내용에서 A의 출생지는 알 수 없다. 정답은 ①번이다.

A : 모스크바에서 태어나셨어요?
 B : 아니요. 저는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에서 태어났어요.
 A : 거기는 정말 춥다고 하던데. 날씨가 어떻죠?
 B :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워요. 그러면 한국의 봄 날씨는 어때요?
 A : 3월은 대개 쌀쌀하고 4월과 5월에는 따뜻하죠.
 B : 제가 듣기로는 올해 3월에 서울에 추웠다고 하네요.
 A : 예, 심지어 눈도 왔어요.

24. [정 답] ④

[출제의도] 의사소통: 동의

[해 설] ‘~ 해도 될까요’ ‘можно + 동사 미정형’에 호응할 수 있는 대답은 ‘물론이죠’ конечно이다. 정답은 ④번이다.

남학생 : 식탁에 같이 앉아도 될까요?
 여학생 : 예, 물론이죠. 빈자리예요.

- ① ~ 해서는 안 된다 ② 왼쪽으로 ③ ~할 필요 없다 ④ 물론이죠 ⑤ 천만에요

25. [정 답] ①

[출제의도] 의사소통: 추측, 의견 표시

[해 설] 추측이나 의견을 표현할 때, Возможно, Наверное, Может быть, Кажется, Пожалуй, Думается, По-моему 등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정답은 ①번이다.

A : 너는 새로 오신 선생님의 연세가 어떻게 될 것 같아?
 B : 아마도 30세 쯤 됐을 거야.
 A : 내가 볼 땐 35세는 넘어 보여.
 B : _____

a. 아마도. b. 아마도 c. 안녕하세요!(저녁인사) d. 즐거운 여행 되세요!

26. [정 답] ⑤

[출제의도] 문법

[해 설] 일정 행위가 일어난 장소, 행위 대상, 목적 등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답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번의 경우, 행위(купить)가 일어난 장소, 때, 그리고 그 대상을 묻고 답하는 경우로 서로 호응하는 관계인 반면, ⑤번의 경우는 ‘이유 - 때’를 나타내는 관계로 서로 호응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A : 너는 _____ 이 책들을 산거니(사준거니)?

B : 나는 이 책들을 _____ 샀어(사 줬어).

- ① 누구에게 - 남동생에게 ② 어디서 - 상점에서
③ 언제 - 그저께 ④ 누구에게 - 여동생에게 ⑤ 왜 - 그저께

27. [정 답] ②

[출제의도] 문법: 일치관계

[해 설] 형용사는 그와 관계하는 명사와 성, 수, 격에서 일치해야 한다. 빈칸에는 바로 뒤이어 나오는 ‘색’ цвет과 성, 수, 격에서 일치하는 형용사가 와야 한다. 그런데 цвет는 남성, 단수, 주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남성, 단수, 주격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A : 나는 이 검정색 셔츠가 맘에 들어.

B : 나는 검정색이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봐.

- ① 여성 단수 주격 ② 남성 단수 주격 ③ 중성 단수 주격
④ 여성 단수 대격 ⑤ 남성, 중성 단수 생격

28. [정 답] ④

[출제의도] 문법: 동사 활용형

[해 설] 동사 ‘원하다’ хотеть의 활용형은 хочу хочешь хочет; хотим хотите хотят, 동사 ‘할 수 있다’ мочь의 활용형은 могу можешь может; можем можете могут이다. 따라서 (a) хочешь (b) могу가 알맞다. 정답은 ④번이다.

A : 너 나랑 함께 도서관에 가고 싶지 않니?

B : 미안해, 난 갈 수 없어. 나 매우 바빠.

29. [정 답] ⑤

[출제의도] 문법: 옳지 않은 것 고르기

[해 설] a. ‘~에 거주하다’ жить는 ‘~에’에 상응하는 장소 관련 어구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나, 방향 표시인 ‘на +대격’이 사용되어 맞지 않다. ‘на юге’가 되어야

한다. b. ‘~에 다녀오다’ éздить는 부정태 동사로 그 자체가 방향 표시 어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방향 표시인 ‘в музей’가 되어야 하나, 전치격이 사용되어 맞지 않다. c. ‘일하다’ работать는 장소 표시 어구가 와야 한다. 그리고 ‘공장’ завод, ‘우체국’ почта, ‘지하철 역’ станция, ‘기차역’ вокзал등은 역사적인 이유로 장소든, 방향이든 전치사 на를 사용한다. 따라서 ‘на заводе’는 맞는 표현이다. d. 동사 ‘~에 위치하다’ находиться는 장소를 나타내는 어구와 호응한다. 그런데 ‘в центр’는 장소가 아닌 방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в центре’로 수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a, b, d 즉 ⑤번이다.

- a. 우리 가족은 남쪽에 산다.(на юге)
- b. 당신은 언제 박물관에 다녀왔나요?(в музей)
- c. 우리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신다.
- d. 그의 집은 시내에 있다.(в центре)

30. [정 답] ①

[출제의도] 문법: 옳은 표현 고르기

[해 설] a. 존재부정을 나타내는 과거 문장으로, ‘없는 것’은 생격으로 표시하고, 중성이 요구되는 문장이다. 맞는 문장이다. b. 동사 ‘다니다, 가곤 한다’ бывать는 장소를 나타내는 문구와 호응한다. 사람 관련 ‘장소’/‘누구 집에’의 의미는 ‘у кого’ 형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у него’가 되어야 한다. c. 소유구문은 ‘у + 생격’으로 표현하고, 소유주를 대명사로 표현할 때 그 대명사가 모음으로 시작되면 모음 앞에 н을 붙인다. 이 때 소유주를 나타내는 대명사와 소유대명사는 구분되어야 한다. c에서는 소유주가 сестра이고, 그 앞의 его는 소유대명사이다. 전치사 у의 직접 지배를 받는 소유주 сестра가 생격이 되어야 하고, 그 앞의 소유대명사 его는 у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н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c는 맞는 문장이다. d. 언어 관련 동사 ‘읽다’ читать, ‘쓰다’ писать, ‘말하다’ говорить, ‘이해하다’ понимать는 по-ру́сски, по-ко́рейски 형태(부사)를 사용하고, ‘배우다’, ‘공부하다’ учи́ть, ‘연구하다’ изуча́ть는 ру́сский язы́к, ко́рейский язы́к 등의 대격형태를 요구한다. 따라서 d도 틀린 문장이다. 한편 ‘러시아어를 공부하다’ учи́ться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занима́ться ру́сским языко́м 등의 표현도 알아두자. 따라서 정답은 a. c. 즉 ①번이다.